

마쓰다이라고관과 마쓰다이라 다로자에몬 가문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 경내에 있는 이 작은 박물관은 마쓰다이라 가문과 관련된 문서, 무기, 갑주, 조각상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은 16 세기에 만들어진 목조 마쓰다이라 지카우지(1394 년 사망 추정)의 조각상 ‘목조 마쓰다이라 지카우지 좌상’(시지정 문화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쓰다이라고에 정착하기 전에 행각승이었다는 점에서 지카우지 조각상은 승려 차림으로 앉아있습니다. 그 외 전시품의 대부분은 마쓰다이라 다로자에몬 가문과 관련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다로자에몬 가문은 마쓰다이라 종가가 남쪽과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시작한 15 세기에, 조상의 땅을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분가였습니다.

다로자에몬 가문은 마쓰다이라 가문의 충실한 가신으로 많은 전투에서 종가와 함께 싸웠습니다. 천하를 건 전투였던 세키가하라 전투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전투는 당시의 마쓰다이라 가문 당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가 일본을 통일하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갑주 중에는 다로자에몬 가문의 무사가 이런 전투에서 착용했던 것도 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을 지배했던 에도 시대(1603~1867)에 다로자에몬 가문은 ‘하타모토(旗本, 쇼군 직속 가신)’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 신분은 마쓰다이라 가문 조상들의 땅과 무덤을 지키는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다로자에몬 가문의 당주는 쇼군을 알현할 권리를 가졌으며, 사실상 수도였던 에도(현재의 도쿄)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했습니다. 1868 년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가 붕괴되면서 다로자에몬 가문은 이 특권을 잃었지만, 20 세기까지도 마쓰다이라고에 저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